

민주노동당(준) 관련 민주노총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본 결과는 1999년 9월 1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정책기획실의 협력을 얻어 분석한 것이다. 당일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505명 중 152명의 대의원이 민주노동당(준) 관련 설문조사에 응했다. 정책기획실에서 통계작업을 수행한 것을 정치위원회에서 정리하였다.

1999년 9월 30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I.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민주노총은 조직적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적극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을 힘있게 건설할 수 있기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준)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짊어졌다.

한편 이에 대해 대중조직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는 것이 옳으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말로는 민주노총이 주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책임있게 대응해나가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하였다. 첫째,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의견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향후 민주노동당(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초해서 향후 민주노동당(준)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방침을 세워나가고 실질적인 노동자 중심성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적극 참여해 왔던 것은 대다수 대의원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이상이 민주노동당(준)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민주노총은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준) 건설과 그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주요 과제, 2,000년 총선에 대한 대응 방향,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할 사회 등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시기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로 현장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 조직과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대중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은 민주노동당(준)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정치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사업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와 사업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준) 건설의 주도세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는 현장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준) 건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로 민주노동당(준)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상층에서는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수차례의 토론을 전개했지만 현장에서는 변변한 논의조차 없었다.

현장 조합원이 대다수 참가하고 현장성과 투쟁성에 기초한 민주노동당 건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이제까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이끌어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에서부터 교육선전, 투쟁, 조직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한다. 이제 현장 정치활동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미래가 달려있다.

II. 설문 결과 요약

1. 민주노동당(준) 지지와 참여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준)을 지지하고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으로 민주노동당(준)을 꼽은 사람이 76.8%(116명)이었으며, 기타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운동세력 각각 5.3%(8명), 국민회의 2.0%(3명), 없다가 10.6%(16명)였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을 꼽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또 현재 민주노동당(준)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75.7%(115명),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24.3%(37명)이었으며, 민주노동당(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이 86.7%(130명)이 되었다. 반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은 5.3%(8명)이었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12명)이었다.

2. 민주노동당 창당 추진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의 다수가 민주노동당 창당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성은 인정하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68.2%(103명)이 민주노동당 창당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29.1%(44명)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1.3%(2명)이었다.

3. 민주노총의 역할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8%(113명)이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22.8%(34명)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창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중조직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4.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과제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의 다수가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과 조직,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을 꼽았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두 가지씩 꼽은 결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 조직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113명),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을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75명). 그 다음으로는 산별노조 건설 등 민주노조 강화(40명), 진보진영의 새로운 이념 창출(35명), 제 단체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21명), 2,000년 총선에 대한 준비(13명) 순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일차적인 투쟁과제로는 고용안정 등 민중생존권 투쟁을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꼽았으며(110명), 다음으로 재벌해체와 경제구조의 재편투쟁을 꼽았다(87명).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쟁취투쟁(38명),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통일투쟁(34명), 정당명부제 등 선거법 개정투쟁(13명),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12명) 순이었다.

5. 2,000년 총선에 대한 생각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 대다수는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준)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수는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준)이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80.8%(122명)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응답했으며, 11.3%(17명)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4.6%(7명)이 많은 당선자를 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2,000년 총선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64.4%(96명)이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고, 24.8%(37명)은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4%(11명)은 참여하지 않는게 좋다고 응답했다.

6.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가 자본주의를 극복한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60.5%(89명)이 자본주의를 극복한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3%(49명)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5명)은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금의 사회가 좋다는 응답은 0.7%(1명)이었다.

Ⅲ. 설문조사 기초 항목

설문조사에 응답한 152명의 대의원들의 기초항목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연령분포

20대 1명(0.7%)
30대 67명(44.1%)
40대 74명(48.7%)
50대 이상 10명(6.6%)

2. 출생지

서울이 22명(14.5%)
인천 2명(1.3%)
경기 11명(7.2%)
부산.경남.울산 33명(21.7%)
대구.경북 21명(13.8%)
대전.충청 29명(19.1%)
광주.전라 26명(17.1%)
강원 7명(4.6%)
제주 1명(0.7%)

3. 거주지

서울 44명(28.9%)
인천 7명(4.6%)
경기 44명(28.8%)
부산.경남.울산 32명(21.1%)
대구.경북 9명(5.9%)
대전.충청 12명(7.9%)
광주.전라 4명(2.6%)

4. 근무하는 산업

제조업(금속산업연맹, 민주섬유, 화학연맹) 63명(41.4%)
공공 38명(25.0%)
사무(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민주관광, 상업연맹) 16명(10.5%)
건설업(건설노련, 전일노련) 7명(4.6%)

운수업(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노련) 6명(3.9%)

교육(전교조, 전강노, 대학노련) 3명(2.0%)

병원 13명(8.6%)

언론 4명(2.6%)

여성노조 1명(0.7%)

6. 사업장 규모

99인 이하 10명(6.6%)

100-299인 25명(16.6%)

300-999인 31명(20.4%)

1,000-2999인 30명(19.9%)

3,000인 이상 55명(36.4%)

IV. 각 항목별 응답

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정치세력(정당)은?

- ① 국민회의 -- 2.0% (3명)
- ② 자민련 -- 0.0% (0명)
- ③ 한나라당 -- 0.0% (0명)
- ④ (가칭) 민주노동당(준) -- 76.8% (116명)
- ⑤ 기타 진보정치세력(청년진보당, 노동자의힘 등) -- 5.3% (8명)
- ⑥ 시민운동세력(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 5.3% (8명)
- ⑦ 없다. -- 10.6% (16명)

2. 귀하는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를 지지했습니까?

- ① 김대중 후보 -- 18.7% (28명)
- ② 이회창 후보 -- 1.3% (2명)
- ③ 이인제 후보 -- 2.7% (4명)
- ④ 권영길 후보 -- 74.7% (112명)
- ⑤ 기타 () -- 2.7% (4명)

3. 지난 대선 때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후보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어서 -- 3.9% (5명)
- ② 후보의 정강 정책이 맘에 들어서 -- 0.8% (1명)
-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 82.9% (107명)
- ④ 투표하지 않았다. -- 12.4% (16명)

4.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후보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5.0% (2명)
- ② 정권교체를 위해서 -- 50.0% (20명)
- ③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 27.5% (11명)
- ④ 기타 () -- 17.5% (7명)

5. 지난 대선 때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의 선거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에 만족한다. -- 0.0% (0명)
- ② 결과는 불만족스럽지만 선거운동 과정에 만족하는 편이다. -- 26.5% (40명)
- ③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 모두 불만이다. -- 67.5% (102명)
- ④ 잘 모르겠다. -- 6.0% (9명)

6. 귀하는 민주노총이 제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준)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 68.2% (103명)

- ② 필요성은 인정하나 잘못 진행되고 있다. -- 29.1% (44명)
- ③ 반대한다. -- 1.3% (2명)
- ④ 잘 모르겠다. -- 1.3% (2명)
7. 귀하는 민주노동당(준)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75.7% (115명)
- ② 아니오 -- 24.3% (37명)
8. 귀하는 민주노동당(준)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86.7% (130명)
- ② 아니오 -- 5.3% (8명)
- ③ 잘 모르겠다 -- 8.0% (12명)
9. 귀하는 민주노동당을 언제쯤 창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99년 말 -- 45.6% (67명)
- ② 2,000년 초 -- 36.7% (54명)
- ③ 기타 () -- 17.7% (26명)
10. 민주노동당을 건설하는데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서 건설해야 한다. -- 75.8% (113명)
- ② 민주노총은 대중조직 임무에 충실하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2.8% (34명)
- ③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 0.0% (0명)
- ④ 기타 () -- 1.3% (2명)
11.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선전과 조직 -- 38.0% (113명)
- ② 제 단체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 -- 7.1% (21명)
- ③ 당면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를 얻는 것 -- 25.3% (75명)
- ④ 2,000년 총선에 대한 준비 -- 4.4% (13명)
- ⑤ 산별노조 건설 등 민주노조 강화 -- 13.5% (40명)
- ⑥ 진보진영의 새로운 이념 창출 -- 11.8% (35명)
- ⑦ 기타 () -- 0.0% (0명)
12. 다음 중 어떤 것이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차적인 투쟁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용안정 등 민중생존권 투쟁 -- 37.3% (110명)
- ② 재벌해체와 경제구조의 재편 투쟁 -- 29.5% (87명)
- ③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통일투쟁 -- 11.5% (34명)
- ④ 정당명부제등 선거법 개정투쟁 -- 4.4% (13명)

- ⑤ 사회복지 쟁취 투쟁 -- 12.9% (38명)
- ⑥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 -- 4.1% (12명)
- ⑦ 기타 () -- 0.3% (1명)

13. 귀하는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준)이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당선자를 낼 것이다. -- 4.6% (7명)
- ②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당선 가능성이 적다. -- 80.8% (122명)
- ③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11.3% (17명)
- ④ 잘 모르겠다. -- 3.3% (5명)

14. 귀하는 2,000년 총선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대한 많은 지역(가능한 199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 24.8% (37명)
- ②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야 한다. -- 64.4% (96명)
- ③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 7.4% (11명)
- ④ 잘 모르겠다. -- 3.4% (5명)

15. 귀하는 진보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의 사회가 좋다. -- 0.7% (1명)
- ②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 33.3% (49명)
- ③ 자본주의를 극복한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60.5% (89명)
- ④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3.4% (5명)
- ⑤ 기타 () -- 2.0% (3명)